

기억하지 않는 사회, 반복되는 재난

의정단상

이명노

광주시의원



2025년 4월 16일, 우리에게 11번째 봄이 찾아왔다. 11년 전 그날, 우리는 약속하고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진실을 인양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런데 지금, 그 약속과 다짐은 어디에 있는가.

마치 하늘이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호통이라도 치는 듯 11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그리고 16일, 사고 엿새 만에 실종된 근로자가 싸늘한 주검으로 우리 품에 돌아왔다.

또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에서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해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세상을 떠났다. 서울의 한복판에서, 부산의 도로에서, 강원도의 주택가에서 땅이 꺼지고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085건이다.

대한민국은 정말 안전해졌는가. 아니, 우리는 정말 ‘기억’하고 있는가.

세월호 참사 이후 수많은 안전 대책이 쏟아졌다. 여러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생겼고, 위기 대응 체계가 개편되었고 법이 바뀌었다. 하지만 문제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걸 작금의 상황들이 보여주고 있다. 제도가 있어도 실제 위기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는 사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우리는 안전한 사회를 기대했다. 실제 산업재해와 시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처럼 공공영역과 기업들도 이 까다로운 법령을 준수하며 안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겪는 ‘시민 재해’는 적용 범위가 좁아 안전 확보에 빈틈투성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3년차, 시민 재해가 적용되고 인정된 사건은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1건뿐이다. 최근 발생한 창원

NC파크의 구조물 추락사고와 이태원 참사,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와 싱크홀 사고 모두 중대 시민재해의 적용 범위 밖이다. 법령은 ‘제조물, 공중이용 시설 또는 공공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발생한 재해만 시민 재해로 인정하고 있어 인도, 차도, 활주로 등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스템과 매뉴얼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싱크홀은 단지 지반의 문제만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관리 실패, 예산과 안전을 맞바꾸는 무책임한 결정의 문제, 사고 후해야 관심 가지는 책임 회피의 태도가 만든 예고된 붕괴다. 공개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지반침하 우려 지역 329 곳을 MBC가 밝혀내 보도한 것은 우리 사회 안전망의 민낯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다.

제주항공 참사는 더 뼈아프다. 구태여 예산을 들여 만든 시설물이 결국 우리가 족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점검은 형식적이었고, 설계와 시공 등에 대한 실질적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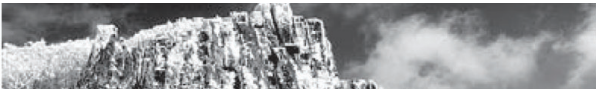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세상

세계적인 브릿팝 밴드 ‘콜드플레이(Coldplay)’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 고양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두 번째 내한공연 ‘라이브 네이션 프레젠티츠 콜드플레이 :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딜리버드 바이 DHL’을 펼쳤다. 당일 5만명이 운집했다. 콜드플레이는 18·19·22·24·25일 에도 같은 무대에 오른다. 총 여섯 차례 공연으로 30만명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 제공

서석대

“인류의 역사를 바꾼 물질이 될 것이다.” 1879년 어느 날,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화학과 아이라 램슨 교수와 제자 콘스탄틴 팔베르크가 새로운 단맛을 내는 물질에 대한 공동논문을 발표했다. 석유의 불순물인 타르에 포함된 화학 물질의 산화 반응을 연구하던 그들은 실험이 끝난 후,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다 강한 단 맛을 느꼈다. 페인트 등을 만들 때 사용되던 톨루엔에 염소와 황산을 반응시킨 뒤, 암모니아를 더해서 만든 새로운 물질. 인체 유해 여부를 놓고 지금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인공 감미료 사카린의 탄생이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1969년 8월 26일, 대법원이 이병철 삼성회장의 둘째 아들 이창희 상무의 유죄를 확정했다. 앞서 삼성은 1966년 5월 울산에 공장을 짓고 있던 한국비료를 통해 사카린 2259 포대를 건설자재로 꾸며 세관 몰래 들여와 판매하려다 들통났다. 이른바 한국비료 사카린 원료 밀수입 사건이었다. “박정희 대통령과 이병철 회장의 공모로 만든 엄청난 규모의 조직적 밀수였다.”는 게 이 회장의 장남이면서 삼성家 ‘비운의 황태자’로 불렸던 이맹희 전 CJ그룹 명예회장의 회고다. 대법원도 ‘이 상무가 한국비료 건설을 위해 이윤이 높고 시중에 인기가 많은 사카린 원료를 밀수하기 위해 일본 미쓰이 물산을 통해 건설자재인 시멘트를 가장해 도입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그룹의 운명을 걸고 밀수까지 감행했을 만큼 70년대 사카린은 기적의 물질이었다. 무엇보다 동일한 중량의 설탕과 비교해 무려 300배의 당도를 가졌지만, 값은 설탕의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경쟁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열량이 없는데다 가정은 물론이고 빵이나 과자, 음료수 등 대량으로 제조되는 어떤 제품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었다. 반면 유해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독성물질을 활용한 제조 방식 때문이었다. 1977년에는 캐나다에서 쥐에게 사카린을 먹인 결과 방광 종양이 발견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1990년부터 사카린 사용을 규제했다. ‘공포의 백색가루’라는 별명도 얻었다.

영국 브루넬대 연구팀이 ‘사카린’으로 세균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사카린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병원균 중 하나인 다제내성균을 억제해 항생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항생제의 내성으로 인한 작·간접 사망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500여 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페니실린과 마이신 등 항생제에 끄떡하지 않는 세균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물질에서 공포의 백색가루로 전락했던 사카린. 그 기구한 운명의 사카린이 세균의 침공에서 인류를 지키는 또 다른 반전의 역사를 쓰고 있다.

이용환 논설실장

경쟁력 강화 필요한 ‘K-푸드’ 상징 김 산업

불법 바로잡고 지원은 늘려야

김 산업 호황을 틈 타 불법 양식이 늘면서 공급 과잉으로 김 값이 크게 떨어졌다고 한다. 전남도도 어업질서를 바로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다. 한류 열풍과 함께 외국인들 사이에서 건강식품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김은 전남의 미래 먹거리가 됐다. 지속가능한 김 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한 때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남산 김 누적 생산량은 지난 9일 현재 48만 9585톤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만 4504톤, 비율로는 27% 증가했다. 하지만 김 생산이 늘면서 위판 가격은 kg당 156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가량 하락했다. 신규 양식장 면허 확대와 함께 불법시설이 늘어난 때문이다. 실제 김 불법 양식 적발 건수는 2023년 42건, 2024년 41건에 달했고, 올 들어 4월까지 39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주산지인 완도·진도·고흥에서만 최근 3년 새 100여 건이 적발됐

다.

불법 양식으로 인한 공급 과잉은 김 가격 하락을 불러와 모두에게 손실이다. 불법 양식이 성행할 경우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어민이 불공정하게 피해를 입는 것도 문제다. 무분별하게 들어선 불법 양식장이 바다에 서식하는 해조류에 악영향을 미치고 어류 서식지를 파괴하는 등 환경에 미치는 폐해도 크다. 원료인 물김이 남아 돌면서 대량 폐기하는 것도 국가적 손실이다. 당장 올해 전남과 전북 등 산지위판장에서 폐기된 물김은 5989톤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남에서만 5296톤이 폐기됐다.

김은 ‘K-푸드’를 상징할 만큼,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 전남도는 지속가능한 김 산업을 위해 불법으로 이뤄지는 김 양식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정부도 생산량이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고, 가공·물류 시설을 확충하는 등 김 양식 어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K-푸드’의 상징인 김 산업의 경쟁력이 곧 지역의 신성장 산업이다.

상아탑 내 빼돌려진 음주문화 근절돼야

MT서 러브샷 강요·음담패설

조선대 신입생 MT(단합대회)에서 음주 강요와 학생 간 성희롱·성추행 의혹이 제기됐다. 학생회는 즉각 사과문을 발표했고, 대학 측도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조선대의 한 학과는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MT 도중, 음주를 즐기던 학생들이 러브샷을 강요하고 음담패설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신입생에게 술을 입에서 입으로 넘기는 ‘5단계 러브샷’을 시켰다는 목격담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학생은 게임 중 성행위나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과 욕설이 공공연히 오갔으며 불쾌감을 토로했다. MT에 참여한 학생들의 익명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학과 학생회는 ‘에브리타임’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조선대 측도 진상 파악에 나섰다. 교내 인권센터를 통해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피해 학생 면담 등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매년 학기 초가 되면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환영회, 동아리 모임 등 다

양한 이유로 학교 곳곳이 술판으로 얼룩지곤 한다. 연대 의식을 공고히 한다는 명목으로 치러지는 의례적인 술자리다. 문제는 이런 술자리에서 많은 선배들이 신입생에게 술을 강요한다는 점이다. 신입생 때 겪는 통과의례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신입생은 술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된다.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마저 형성돼 있다. ‘모이면 술자리’로 이어지는 대학 내 음주문화가 초래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심지어 1990년대 후반에는 강압적인 술자리에서 폭음을 한 신입생이 숨지는 불의의 사고도 있었다.

잘못된 대학 음주문화는 지금도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다. 이는 기성세대의 왜곡된 음주 관행을 대학생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빼돌려진 술문화가 대학문화 전체로 매도돼서도 안된다. 대학 MT와 축제에서의 술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술자리가 존재한다면, 강압이 아닌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원하는 사람만, 원하는 만큼’ 마시는 올바른 음주문화가 정착되도록 대학 구성원 모두가 힘써야 한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